

# 전문연구 축적한 공직자들의 저작물 는다

## 현장체험 바탕으로 실증적인 내용... 스테디셀러도 적지 않아

공무원들은 그들의 교육수준이나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적 비중으로 보았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엘리트 집단 중의 하나이다. 그들의 내부에는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학식을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분야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집단은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자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특수성과 해방 이후 거듭되어온 독재정권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정권에 복무하는 것이 우선시됐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공무원 사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업무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경험을 축적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책 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책 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과시적인 성과물이나 정치적인 용도에 의한 저술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게 사실이었다.

최근들어 출간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저작물은 학계나 출판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른바 양서들이 많이 눈에 띄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산업개발·과학기술 등 관련서 다수 출간

95년 들어 출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저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어떻게 높일 것인가》《뉴 라운드》(이상 지식산업사),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다산출판사), 《미국은 가짜다》(넥서스), 《세계문화산책》(인시), 《중원》(청노루), 《일체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살림터), 《지방시대 우리의 미래》《지방자치 이것을 아십니까》(이상 다산 미디어) 등 10여종에 이른다.

95년 이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으로는 《동양과 서양》《격동하는 러시아 정치》(이상 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76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석식(41) 공무원의 저서이다. '한국과학기술 세계화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과거처에서 근무하면서 체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예술, 환경, 문화 등 총체적인

최근 들어 출간되는 공직자들의

저작물은 업무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체험을 쌓은 뒤

실증적인 내용과 자료를 담아냄으로써

출판 서점가에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장에서 고민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무원 집단의 특성상, 그들의

저술활동은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들과 함께 숨쉬어야 하는 미래 과학기술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초고집적반도체,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차세대 원자로, 신의학, 신농약 등 구체적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수록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존재여건을 감안한 실증적인 저술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뉴 라운드》는 현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으로서 있는 최영진씨 등 13명의 공직자가 공동 저술한 책으로 외무부 경제국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이들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새로운 경제이슈를 소화하기 위해 '목요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했던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하고 있다. 각기 전담업무별로 나누어 국제 통화제도, 무역과 노동기준, 국제환경법, WTO, OECD, 에너지 외교, 기후변화 협약 등 세계화 시대 국가와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실증적인 자료들과 경험을 통해 세계화 시대 우리의 위치와 미래를 적절히 보여주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책이다.

《서비스 산업 개방과 WTO》는 82년부터 재정경제원(舊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철수 사무관의 저서로 전세계 GNP의 약 60%를 점하는 서비스산업 개방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인 'WTO 서비스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금융, 통신, 건설, 유통, 운송, 회계, 법률, 광고, 의료, 교육 등 농림어업과 광공업에 제외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서비스산업 개방의 실체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에 따른 대응책 등을



공직자들의 저서가 서점가에 진전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최근 출간된 공직자들이 쓴 책들.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 일하다 총무처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뉴욕시청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현재는 재정경제원 OECD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무상씨(38)가 쓴 《미국은 가짜다》는 한국공직에 몸담았던 경력을 가지고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시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미국문화를 공직자 특유의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지방자치 관련서인 《지방자치 이것을 아십니까》와 《지방시대 우리의 미래》는 각각 총무처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한 정문화씨(지방행정 연구원장)와 내무부에서 오랜 관료생활을 한 이의근씨가 저술한 지방자치 관련서로 태동기에 접어든 국내 지방자치의 요긴한 텍스트로 읽히고 있다.

### 자료적 가치도 높아

국가정책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저서는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내용과 사회전반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출판, 서점가에서도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공직자들의 원고를 검토해 보면 그 수준이나 내용이 뛰어난 것이 많다"는 것이 출판사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을지서적 홍보실의 황선옥씨는 "공직자들의 저서가 스테디셀러로 자리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잔재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관료주의 타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책 출간을 굽지 않은 눈길로 보는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지식산업사의 장인숙 편집장은 "책을 출간할 때 이런 점을 우려해

필명을 요구하는 필자들이 간혹 있다"고 전한다.

《우리의 과학기술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저자인 과학기술처 공보관 최석식씨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책 출간을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반반 정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한다. 최공보관은 "공무원집단이 고민을 많이 하는 동시에 공부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허연 기자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